

DBpia

황룡사 중금당 佛脊屬 16존상의 복원

- 불제자상, 금강역사상과 獅子像 그리고 공양자상

Restoration of the Figures of Buddha's 16 Dependents in the Main Hall of the Hwangryongsa

저자 임영애
(Authors) Lim, Young-ae

출처 [신라사학보](#) , (23), 2011.12, 299-339 (41 pages)
(Source) [SILLASAHAKPO](#) , (23), 2011.12, 299-339 (41 pages)

발행처 [신라사학회](#)
(Publisher)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2518>

APA Style 임영애 (2011). 황룡사 중금당 佛脊屬 16존상의 복원. 신라사학보 , (23), 299-339.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210.178.101.***
2020/03/20 16:1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황룡사 중금당 佛眷屬 16존상의 복원*

- 불제자상, 금강역사상과 獅子像 그리고 공양자상-

임 영 애**

- | | |
|--------------------|-----------------------------------|
| I. 머리말 | III. 불권속 16존상의 존명 및 형상
특징 |
| II. 불권속 16존상의 조성시기 | IV. 맺음말 - 다양한 불존상의 동시
배치와 일체화- |

【국문초록】

이 글은 황룡사 중금당 안에 남겨진 16기 대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살펴

* 이 글은 2010~2011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프로젝트의 보고서인 《황룡사 복원 고증 연구》 황룡사 연구총서 8,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166~194쪽에 실렸던 <중금당 16존상>를 토대로 改稿한 것임을 밝혀둔다.

**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주요 논저 : 임영애, <석굴암 사천왕상의 도상과 불교경전> 《강좌미술사》 37, 2011.12 : <금강역사상에서 사천왕상으로 - 신라석탑 탑신 부조상의 추이 -> 《선사와 고대》 35, 2011.12 :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통일신라 수용과 전개> 《신라문화》 38, 2011.8 : <북방 多聞天과 그의 持物 寶塔 - 원과 고려이전 양상 -> 《미술사와 시각문화》 9, 2010.10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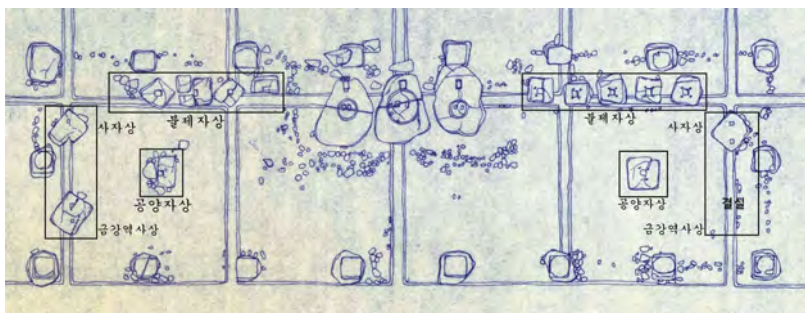
본 것이다. 그 결과 불삼존상 좌우의 10기 대석은 불제자상, 좌우벽 앞의 4기는 금강역사상과 獅子像, 그 앞 공간의 2기는 공양자상의 것으로 상정하였다. 동일한 구성은 통일신라 연기지방의 불비상에도 보인다. 특히 비암사의 673년 癸酉銘 불비상과 蓮華寺 불비상에도 승려상, 금강역사상, 사자상이 함께 등장하며, 689년 己丑銘 불비상에는 불제자상, 금강역사상, 사자상, 궤좌의 공양자상이 모두 등장하고 있어 지금까지 필자의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6세기 후반 황룡사 중금당의 불존상이 조성될 무렵 신라에는 사천왕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7세기 중~후반 사천왕상이 유행하면서 경주에 사천왕사가 등장하고, 감은사사리기의 사천왕상 등이 만들어진다. 사천왕상의 유행과 함께 8세기 중엽의 석굴암에는 사천왕상이 추가된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존상의 가감은 있겠지만 석굴암 안에 불상, 보살상, 불제자상, 사천왕상, 금강역사상, 팔부중 등 여러 존상이 함께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황룡사 중금당 내 여러 종류의 존상이 연출한 장엄함에 강한 인상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불교가 유입된 이후 초기의 불교조각은 단독상이거나 삼존상이었다. 이후 불삼존상 이외에 금강역사상이나 사자상, 공양자상과 같은 다양한 불교조각의 존상들이 한자리에 동시에 배치되고 이들이 일체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황룡사지 중금당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황룡사의 불교조각이 차지하는 의미는 특별하다.

주제어 : 황룡사, 중금당, 불제자, 나한, 십대제자, 금강역사, 사천왕, 사자, 공양자

I. 머리말

과거 황룡사 중금당에는 모두 19구의 존상이 있었다. 정면 벽에는 장육삼존을 포함하여 모두 13구의 존상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좌우 벽에는 각 2구씩의 존상이, 그리고 그 앞의 공간에 각 1구씩 총 19구의 존상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글에서 논의하려는 존상은 그 중 중앙의 삼존상을 제외한 16구이다. 현재 이 16구 존상을 받들던 16기의



<도면 1> 중금당 16존상 배치도

臺石 중 2기는 유실되었다.) <도면 1> 하지만 나머지 14기 대석은 제 자리에 정연하게 남겨져 있어 16구의 존상이 원래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 파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들 대석 위에 조성되었을 존상의 존명은 무엇이며, 그 모습은 과연 어떠한이었을까 이다.

이들 대석 위에 조성되었던 16구 존상의 존명은 남겨진 대석의 숫자와 배치를 고려하여 십대제자상, 사천왕상 그리고 범천·제석천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²⁾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장육삼존 좌우에는 십대제자상, 금당 좌우벽에는 사천왕상, 그리고 그 앞 공간에는 범천과 제석천이 봉안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중앙 삼존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5구씩 모두 10구의 존상으로는 ‘십대제자상’이, 좌우에 2구

- 1) 지금까지 이들 유구를 ‘대좌’라고 불러왔지만 이번 연구의 검토결과 대좌가 아니라 대좌를 받치던 ‘대좌받침’ 즉 ‘대석’임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이들 유구를 ‘대석’이라고 부른다.
- 2) 문명대, <신라 삼보 황룡사 금당 석가장육존상의 복원과 황룡사지 출토 금동불입상의 연구> 《녹원스님고회기념학술논총 - 한국불교의 좌표 - 》, 녹원기념 학술논총간행회, 1997, 380~393쪽(<신라 삼보 황룡사 금당 석가장육삼존상의 복원과 황룡사지 출토 금동불입상> 《한국의 불상조각》 제1권, 2003, 356~362쪽에 재수록).

씩 모두 4구의 존상으로는 ‘사천왕상’이 가장 통상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며, 나머지 2구를 ‘범천’과 ‘제석천’으로 추정하였던 것도 비슷한 이유이다.

이 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남겨진 19기의 대석 중 장육삼존상 대석 3기를 제외한 총 16기 대석은 언제 조성된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16기 대석이 장육삼존상의 대석 3기와 함께 조성된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삼국유사》에 장육삼존상에 관해서는 574년에 완성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나머지 16존상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³⁾ 장육삼존을 제외한 나머지 16기 대석이 장육삼존과 같은 시기인 6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어서 논의할 16구 존상의 존명과 형상 추정복원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둘째, 존명과 형상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왔던 것처럼 정면에 놓인 10기의 대석이 ‘십대제자상’의 것이고, 좌우의 4기 대석은 사천왕상의 것이 맞는지, 아울러 나머지 2기의 대석 역시 ‘범천’과 ‘제석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것이다. 만약 16기의 대석이 장육삼존과 동일시기에 조성되었다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6세기 중~후반이라는 시기에 동아시아에 십대제자상, 사천왕상 그리고 범천·제석천상이라는 존상이 가능한가? 동일한 시기 동아시아에 선풍이 존재하는가? 만약 이러한 추정이 불가능하다면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존상 중 어떤 상이 금당 내에 안치되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아울러 대략의 존명이 밝혀진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 형상은 어떠했겠는 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조성시기와 존명이 드러난다면 중국과 일본의 남겨진 예들을 통해 어느 정도 형상의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T2039 3:990a 《三國遺事》 皇龍寺丈六.

황룡사지에 남겨진 16기의 대석만을 두고 그 위에 원래 어떤 종류의 존상이 세워졌을 것인가를 잘라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잘 알려진 대로 황룡사지는 오랜 기간 동안 발굴되었지만 현재까지 16구 존상과 관련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⁴⁾ 뿐만 아니라 참고자료로 삼을 만한 6세기 신라의 기년작은 물론이고 남겨진 불상 또한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6구 존상의 존명에 대한 깔끔한 해답을 도출해낼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원형에 보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 비교적 풍부한 자료를 남기고 있는 6세기 중국 남북조의 불상, 문헌사료의 보다 면밀한 검토, 남겨진 16기의 대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몇몇 단서 등을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삼아 앞서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려 한다.

II. 佛眷屬 16존상의 조성시기

잘 알려진 대로 장육삼존상은 진흥왕 35년(574)에 주조되었으며, 10년 후인 진평왕6년(584)에 장육존상을 위한 중건 금당이 완성되었다.⁵⁾ 584년 완성된 중건 금당 안에는 3구의 장육삼존만 있었을 것인가, 아니면 16구의 존상이 모두 함께 조성되어 있었을 것인가? 《삼국유사》

-
- 4)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皇龍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II, 1984 및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 금당 기초 연구》 황룡사연구총서 5, 2010 참조.
- 5) 황룡사의 창건가람은 궁궐로 조성된 것이며, 이후 사찰로 용도 변경하여 완성된 가람이 중건가람이라고 보았다(남동신, <新羅 中古期 佛敎治國策과 皇龍寺>,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第22輯 2001.3, 14쪽). 이 글에서 다루는 금당은 바로 중건가람의 중금당이다.

에는 장육삼존상의 조성 시기가 574년이며, 존명은 석가삼존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삼존상의 좌우에 배치된 나머지 16구의 존상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일연이 나머지 16구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574년 당시 장육삼존만 조성하고 나머지 16구는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함께 조성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나머지 16구에 관한 기술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인지 분명히 알 수 없다. 장육삼존상 주위에 배치되어 있는 16구 존상은 과연 언제 조성되었을까?

16구 존상의 조성 시기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장육삼존과 함께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장육삼존이 완성된 574년 전후에서 584년 금당 완성이전 사이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둘째는 금당이 완성된 이후 추가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584년 금당이 완성된 이후 언제인가 16구의 존상을 추가로 조성하여 중금당에 새로이 안치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 경우 추가 안치된 시기는 또 과연 언제인가 하는 복잡한 문제가 동반된다.

지금까지 중금당 안의 16기 대석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⁶⁾ 발굴을 담당하였던 고고학자들 역시 유구의 변천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나, 정작 장육삼존의 대석 3기를 비롯한 19기의 대석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장육삼존의 대석에 관심을 표명한 경우 자연스럽게 나머지 16기 대석도 삼존상의 대석과 함께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⁷⁾ 필

6) 황룡사의 조각을 미술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대표적 논문은 김리나, <皇龍寺의 丈六尊像과 신라의 阿育王像系佛像> 《진단학보》, 1979, 195~215쪽 ; 문명대, 앞의 책, pp.356~362를 꼽을 수 있다. 이 중 문명대교수가 16기 대석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였는데, 16구 존상 역시 장육삼존과 동시에 조성되었을 것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7) 양정석, <皇龍寺 中金堂의 조성과 丈六尊像> 《선사와 고대》 12, 1999,

자 역시 장육삼존상을 포함한 19구의 존상을 한꺼번에 조성하여 금당에 봉안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기왕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굴결과에 따른 추정이다. 발굴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16기 대석은 토층과 유구의 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장육삼존의 대석과 동일시기로 추정 보고되었다.⁸⁾ 아울러 중금당 건설에 앞서 불상조성을 위한 가설용 비계가 설치되었음도 밝혀졌다.⁹⁾ 비계목을 세웠던 자리로 추정된 직경 60cm 내외의 둥근 구멍은 삼존불 대석 주위의 남쪽과 북쪽에서 발견되었는데, 뒷면에 두 줄로 8개, 앞면에 두 줄로 6개가 있었다.¹⁰⁾ 구멍은 삼존불 주변 이외에도 동서쪽 대석의 앞면에도 있는데, 이들 구멍 역시 여러 불권속을 안치하기 위한 가설용 비계구멍으로 추정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구멍들은 토층조사에서 나타난 상태로 보아 초석이 놓이기 이전에 가설되었던 구멍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중금당 건물이 세워지기 이전 불상의 배열과 안치가 먼저 행해졌음을 암시해주는 증거로 보았다.¹¹⁾ 이러한 정황으로 보면 대석이 조성되고난 후 비계가 설치되어 불상을 배열 안치하고 그 이후에 금당이 조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미루어 적어도 16기의 대석은 장육삼존의 대석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둘째, 규모로 보았을 때 중건 중금당은 처음 설계 당시부터 장육삼

283~318쪽.

- 8)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앞의 책, 62~72쪽 참조.
- 9)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53쪽 ; 양정석, <신라중금당의 조성과 장육삼존상> 《선사와 고대》 12, 289쪽.
- 10)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위의 책, 1984, 49, 53쪽.
- 11)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1984, 49, 53쪽 ; 양정석, 앞의 논문, 289쪽.

존 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금당은 정면 9칸, 측면 4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의 내진으로 짐작되는 유구의 규모는 정면 7칸, 측면 2칸이다. 내진의 크기만 동서 12m, 남북 5.5m에 달한다. 이렇게 커다란 금당이 단지 삼존불 만을 위한 것이었겠는가 하는 것이다<도면 1>.12) 도면 1을 참조해 보면 전체규모와 존상과의 관계가 드러나는데 중금당의 크기만으로도 처음 조성당시 장육삼존만을 고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규모의 관점에서 보면 중금당시 중금당을 설계할 때부터 총 19구의 여러 존상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중금당 완성 당시 16구의 존상은 조성하지 않았지만, 설계당시에 이들이 세워질 것을 고려하여 중금당의 크기를 조절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가 성립되면 중금당 완성 당시 16기의 대석은 있지만 존상은 세우지 않아야 한다. 앞서도 이야기하였지만 발굴결과를 통해 적어도 19기 대석은 서로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상상해 보면, 중금당 완성 당시 장육석가삼존상만 봉안되어 있고 나머지 불권속은 존상 없이 대석만 있는 불완전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중금당 내의 모습을 두고 일연이 ‘584년 중금당 완성’이라고 기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셋째, 6세기 중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다양한 佛像群의 조성이다. 4~5세기 중국의 불교조각은 단독의 불상 혹은 불·보살상으로 구성된 삼존상이 일반적이었다. 이들의 대좌는 잘 알려진 대로 방형 대좌의 좌우에 한 쌍의 사자가 배치되어 있는 사자좌가 대세였다. 그러나 6세기에 들어서면 대좌의 사자는 대좌에서 벗어나 단독상이 되며, 불·보살상 이외에도 각종 승상, 금강역사상, 공양자상, 주악상 등이 등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북위후기의 용문, 공현석굴 등의 불상군을 비롯

12) 양정석, 앞의 논문, 290쪽.



<도 1> 梁中大通5年(533) 佛碑像 사천성 성도 만불사지 西安路 등지에서 출토된 사진

하여 6세기 사천성 성도 梁代 萬佛寺址, 西安路 등지에서 출토된 각종 佛碑像의 불상군 등 남북조를 막론한다. 특히 6세기 양대 불비상에는 20여구가 한꺼번에 새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많은 경우 30여구까지 새겨진 예도 적지 않다. 예컨대 梁中大通 5년(533)명 불비상이나 梁中大同 3년(548)명 불비상에는 수십 구의 다양한 존상들이 새겨져 있다<도 1>.13) 이 중 양중대동3년명 불비상은 존상의 숫자가 가장 많아 불상, 보살상을 비롯하여 각종 승상, 금강역사상, 獅子像,

13) 成都市文物考古工作隊·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 <成都市西安路南朝石刻造像清理簡報> 《文物》 1998-11, 1998, 4~20쪽(일본어 번역문 《佛教藝術》 252, 2009, 13~34쪽); 李裕群, <試論成都地區出土的南朝佛教石造像> 《文物》 2000-2, 64~72쪽; 霍巍, <四川大學博物館所藏的兩尊南朝石刻造像> 《文物》 2001-10, 39~44쪽; 袁曙光, <四川省博物館藏萬佛寺石刻造像整理簡報> 《文物》 2001-10, 19~38쪽.



〈도 2〉 佛七尊像, 백대리석, 높이 73cm,
하북성 임장현, 북제 6세기,
河北省文物研究所(《中國 國寶展》,
東京國立博物館, 2000, 도 141)

侏儒像, 코끼리상 등 모두 4구에 달한다. 북제시기 불미상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도 2>. 이러한 6세기 중국 불상군들을 상기해 보면 584년 중건금당 완성 당시 19구의 존상이 모두 조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뒤에서 다시 기술하겠지만 통일신라 연기지역 7세기 불미상들은 6세기 후반 황룡사 금당에 많은 존상들이 함께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역유추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이다.

한편 547년 《洛陽伽藍記》는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기록을 전한다. 기록에 따르면 북위

永寧寺의 불전 내부에는 1장8척의 거대한 금상 1구, 中長金像 10구, 진주로 장식된 繡佛 3구, 織成 5구를 포함하여 모두 19구의 존상이 모셔져 있었다고 한다.¹⁴⁾ 이처럼 영녕사 불전 내에 십여 구의 존상을 조성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불전의 크기도 황룡사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황룡사 연구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시도도 있었다.¹⁵⁾ 그러나

14) T2092 1:999c 《洛陽伽藍記》 城內 卷第一

15) 양정석, 앞의 논문, 293쪽; 양정석, <신라 황룡사, 북위 영녕사 그리고 일본 大官大寺 - 5~7세기 동아시아 도성제와 관련하여 - > 《한국사학보》 9, 2000, 9~56쪽; 東伏見邦英, <新羅의黃龍寺九層塔に關する一考察>, 《寶雲》 31冊, 1943.

영령사 불전 내 모셔진 존상의 산술적인 숫자는 황룡사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1장8척과 등신대상 10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환조상이 아닌 벽걸이용으로 황룡사의 여러 존상들과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아쉽게도 《낙양가람기》의 기록은 존명 중심이 아니라 재료와 크기를 중심으로 나열한 것이어서 황룡사 중금당의 여러 존상의 존명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6세기 불전 내부에 십여 구의 불상군이 존재하였음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넷째, 《삼국유사》의 기록이다. 《삼국유사》에는 적어도 구층목탑이 세워지기 전에 중금당에 삼존불상 외에 다른 존상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삼국유사》 권3 塔像 제4 <황룡사구층탑>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전한다.

“처음에 찰주를 세우던 날에 공장이는 꿈에 본국인 백제가 멸망하는 모양을 보았다. 공장은 마음속에 의심이 나서 일을 멈추었더니,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며 어두워지는 가운데 老僧 한 사람과 壯士 한 사람이 金殿門에서 나와 그 기둥을 세우고는 중과 장사는 모두 없애지고 보이지 않았다. 공장이 후회하고 탑을 완성시켰다(밑줄: 필자).”¹⁶⁾

물론 《삼국유사》 기록의 역사성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지만, 위의 기록에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장육금불상을 모신 금당문에서 노승과 장사가 나와서 기둥을 세웠다는 내용을 통해 탑을 세우려고 할 당시 중금당에는 장육삼존상 외에 다른 존상들이 있었음을 암시하며, 나아가 불권속 존명 추정 의 단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6) T2039 3:990c 《三國遺事》 皇龍寺九層塔. 위 번역은 동국대학교 역경원의 번역문을 토대로 일부 수정을 가하였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삼국유사>>에서는 ‘석가삼존을 조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을 뿐 다른 존상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16구의 불권속이 3구의 장육삼존상과 동시에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제 兵火가 있는 이후로 大像과 두 菩薩像은 모두 녹아 없어졌고, 작은 석가상만 남아 있을 뿐이다.”¹⁷⁾라는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병화 이전 중금당 안에는 19구의 존상이 엄연히 봉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연은 장육석가삼존의 소실만 기록하고 있을 뿐 나머지 16구 존상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로 미루어보면 일연은 장육석가삼존상 이외의 존상에 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런 이유로 불권속에 관한 기술이 없는 것이 당시 불권속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Ⅲ. 불권속 16존상의 존명 및 형상 특징

앞서 제시한대로 장육삼존상의 대석 3기와 나머지 16기의 대석이 동시에 조성된 것이라는 필자의 전체가 옳다면, 16기의 대석 위에는 과연 어떤 종류의 존상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그 모습을 또 어떠하였겠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기왕에 알려져 왔던 것처럼 16기 대석이 십대제자상, 사천왕상, 범천과 제석천의 것일까? 과연 6세기 후반 신라에 이들 존상이 조성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을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장육삼존상이 조성되는 6세기 후반에 과연 황룡사가 호국적인 성격을 지닌 사찰이었던가도 함께 연구되어야 하는데,

17) T2039 3:0990a <<三國遺事>> 皇龍寺 丈六.

통상적으로는 황룡사가 호국적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 선덕여왕 이후라고 여겨지기도 하여 이 모든 제반사항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보다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¹⁸⁾ 뿐만 아니라 십대제자상, 사천왕상, 그리고 범천·제석천상과 관련된 경전의 번역시기 및 해당 경전의 신라 유입시기, 아울러 6세기 동아시아에 이들 존상의 이미지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보려한다.

한편 현존하는 16기 대석의 크기와 그 안에 뚫린 구멍의 숫자 및 배치에 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들 대석의 크기와 구멍의 숫자, 위치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대좌와 존상을 안치했는지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입상인지 좌상인지를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다. 또 입상인지, 좌상인지, 입상이라면 발 사이를 많이 벌렸는지, 가지런히 썼는지도 존명 결정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1. 佛弟子像 추정 10구

중금당 내부 정면에는 13기의 대석이 놓여있다. 장육삼존의 것을 제외하면 좌우에 각5기씩 모두 10기의 대석이 남는다<도면 1>. 중앙의 장육삼존 대좌 좌우에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이들 10기의 대석은 정방형에 가까운 방형으로 치석하였다<도 3>. 비교적 잘 남겨진 향우측 대석 5기의 평균크기는 1.27×1.26m가량인데, 중앙에 28×29.5×28cm 크기의 축을 꽂았던 구멍이 있고, 구멍 주위에는 네 개의 작은 홈이 파

18) 황룡사가 원래는 왕실의 사적인 사원으로서 창건되었다가 선덕여왕대 이후 중대에 호국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창건가람에서 중건가람으로의 변천은 이러한 과정을 상징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李成市, <新羅中代國家と佛教> 《東洋史研究》 42-3, 1983, 71~72쪽).



〈도 3〉 불제자상 추정 대석(임영애 사진)

여 있다<도 4>.¹⁹⁾ 현재 남겨진 대석들은 표면에 야질흔만 있을 뿐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그대로 표면에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짐작컨대 10기 대석 위에는 황룡사에서 출토된 대좌와 유사한 형태의 대좌가 덮여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도 5>.²⁰⁾ 황룡사출토 대좌의 바닥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4개의 축이 바로 중앙 구멍 주변에 파인 작은 홈에 끼워졌을 것이며, 이 4개의 홈은 대석 위에 대좌가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홈은 사실상 존상의 재질이 석조인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석조상의 경

19) 대석 중앙의 축구멍 크기는 10기의 대석 중 가장 완전하게 남아있는 향우측 안쪽에서 두 번째 상의 것을 측정한 것이다. 홈은 대략 6.5~7.5×5~7cm, 깊이 3.5~4cm 정도이며, 수직이 아니라 사선으로 파여 있어 힘을 받기 위한 지지대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0) 불상과 보살상에만 연화좌가 배치된다고 보기도 하지만(한정호, <황룡사중금당지 불상대석에 대한 고찰> 《미술사연구》 24, 2011, 46쪽), 나한상이나 금강역사상도 연화좌 위에 서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양보통4년(523)명 불비상에서 연화좌 위에 서있는 금강역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



〈도 4〉 불제자상 추정 대석의
촉구멍과 홈(임영애 사진)



〈도 5〉 황룡사지 출토 대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주수완 사진)

우 하중이 크기 때문에 굳이 4개 홈의 힘을 빌지 않아도 대좌가 흔들릴 염려가 없다. 중앙의 커다란 구멍은 존상의 발밑에 연결되어 있는 축이 꽂혔던 자리이다. 통상 존상의 두 발을 받들고 있는 발밑의 蓮蕊과 그 아래 붙어 있는 축은 하나로 구조되는데, 축은 복련 대좌의 중앙을 관통하여 대석에 꽂히게 되며 이로써 존상과 대좌, 대석은 서로 연결된다<도 6>. 남겨진 대석을 통해 추정해 보면 그 위에 세워졌을 존상은 양발을 가지런히 모은 입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재질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동이었을 것이다.

10기 대석의 중심은 협시보살의 홈 중심선보다 약 90cm 뒤쪽에서 있다(도면1 참조).²¹⁾ 현재 10기의 대석 중 1개는 유실되었으며, 남겨진 9개 중 7개는 정사각형, 나머지 2개는 마름모형으로 서로 모양이 다르다. 이처럼 대석의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촉구멍의 모양과 크기는 같아 그 위에 봉안된 대좌와 존상은 대석의 모양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10기의 대석은 완전하게 남아있는 향우측 대석의 형태로

21)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앞의 책, 82쪽.



<도 6> 금동불입상 발과 축 부분,
황룡사지 출토, 동국대학교
박물관(주수완 사진)

미루어 보면, 10기 모두 동일한 크기를 의도한 것이며 등간 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크기의 상이 등간 격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은 이들이 같은 종류의 존상임을 암시하는데, 존격은 장육석삼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이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육삼존보다 뒤에 서있으며, 지표면 상에 드러나는 대석의 높이도 1m 높이의 장육삼존 대석에 비해 40cm가량 낮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육삼존 좌우에 놓인 10구의 존상은 성문비구 모습의 입상이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10구의 동일한 크기의 존상이 조성될 경우 승상이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6세기 북위 용문석굴이나 양대 불비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예가 바로 승상이며, 이들의 높이는 서로 일정하다. 물론 존상의 숫자는 상마다 일정치 않아서 불상 좌우에 2구만 있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12구까지 존재하기도 한다<도 1>. 6~7세기 신라의 승상은 알려진 바 없지만 백제의 승상은 몇 구 전한다. 예컨대 6세기 제작으로 여겨지는 보살삼존상의 좌우에도 합장을 한 승상이 서있고, 1960년대 말 부여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7.75cm의 작은 단독승상도 있다<도 7>. 이렇게 보면 6세기 경 승려의 모습을 한 승상은 그다지 낮은 존재는 아니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 승상의 존명이다. 승려의 모습을 한 상은 크게 나한상

과 고승상, 석가모니의 제자상으로 대별된다. 이 중 첫째, 나한상의 경우, 그 개념은 불교초기부터 있었지만 나한신앙의 유행과 나한상 이미지의 시각화는 645년 玄奘이 《大阿羅漢難提密多羅所說法住記》(일명 《법주기》)를 한역한 이후에나 비롯되었다.²²⁾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문헌상으로 나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통일신라시대 후기부터이며, 이 후 나한신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종교적으로도 확고한 위치를 확립한 때는 고려시대이다.²³⁾ 이러한 정황으로 판단해 보면 6세기 후반에 조성된 황룡사 중금당의 10구 승상이 나한상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황룡사에서 개최하였다는 百高座會와 관련해서이다.²⁴⁾ 백고좌회의 소의경전인 《인왕경》에서는 백고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100구의 불상, 100구의 보살상, 100구의 나한상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²⁵⁾ 이 때 필자의 관심은 물



〈도 7〉 금동승입상, 백제 높이 7.75cm, 傳 충남 부여 리움(《나한》, 국립춘천 박물관, 2003, 도7)

22) T125 26:696a 《增一阿含經》 第26卷 : 정병삼, <고려와 조선시대의 나한신앙> 《나한》, 국립춘천박물관, 2003, 155~157쪽 ; 이선형, <중국 남송대 십육나한도의 도상연구> 《미술사학연구》 183, 1989, 60~61쪽.

23) T2039 3:1000a 《三國遺事》 臺山五萬眞身條 ; 최성은, <우리나라의 나한조각> 《나한》, 국립춘천박물관, 2003, 183쪽.

24) 신라의 백고좌회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김복순, <신라의 백고좌법회> 《신라문화》 36, 2010, 81~112쪽 ; 남동신, 앞의 논문, 18~23쪽.

25) T245 下:0829c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 護國品第五.

론 100구의 나한상이다. 《삼국사기》는 진흥왕12년(551) 고구려에서 귀화해 와서 승통이 되었던 惠亮이 처음 백고좌회를 시작한 것으로 적고 있다.²⁶⁾ 기록대로라면 6세기 중엽 신라에서 백고좌회가 열렸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²⁷⁾ 중국에서 백고좌회가 유행하게 된 계기를 天台智者가 陳 後主의 요청으로 至德 3년(585) 4월 이래 태극진과 광택사에서 《인왕경》을 강설한 데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중국에서 585년 백고좌회 개최가 이른 예임을 감안하면 신라에서 551년에 백고좌회가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동의한다.²⁸⁾ 신라에서 처음 개최된 시기가 정확히 언제 든지 간에 적어도 6세기 후반에 100구의 나한상이 존재하기는 어렵다. 100구 나한상의 존재여부만 두고 판단하면 백고좌회는 7세기 이후나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판단이다.²⁹⁾

둘째, 10구의 고승상이다. 잘 알려진 대로 《삼국유사》 흥법조 흥륜사 금당십성조에 따르면 흥륜사에는 10명의 흥륜사 관련 고승의 소조상이 있었다. 이들 중 가장 늦게까지 생존했던 표훈으로 정확한 생졸년은 알 수 없지만 경덕왕대 활동한 고승로 알려져 있고 보면 이들 흥륜사 十聖像은 빨라도 8세기 후반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 이전의 예로 설총이 조성하였다는 원효상과 같이 단

26) 《三國史記》 卷44 列傳4 居柒夫.

27) 거칠부가 혜량법사의 무리를 이끌고 돌아온 일과 진흥왕이 혜량을 승통으로 삼고 처음으로 백좌강회를 개최한 일을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백좌강회는 566년에 처음 시작되었을 것이라 보기도 한다(김복순, 앞의 논문, 84~86쪽).

28) 남동신, 앞의 논문, 19~20쪽.

29) 백고좌법회는 신라에서 10회, 고려에서 200회 개최되어 유행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신라에서의 10회는 현재 개최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첫 법회를 제외한 나머지 9회는 7세기에 2회, 8세기에 2회, 9세기 4회, 10세기 1회의 분포를 보인다(김복순, 앞의 논문, 95~96쪽).

독상이 간헐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10구를 한꺼번에 제작한 예는 알려져 있지 않다.³⁰⁾ 이는 중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 황룡사 금당내 장육삼존 좌우측에 신라시대에 승려들의 모습을 재현한 10구의 고승상을 조성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간과해서 안 될 것은 후대 석굴암의 10존의 제자상, 흥륜사의 십성상과 같이 ‘10구’의 승상이 조성되는 데는 황룡사 금당의 10구 불제자상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10구의 불제자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제자상은 십대제자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금당 안의 10구 승상은 석굴암 불상배치를 단서로 십대제자상으로 비정된 바 있다.³¹⁾ 문제는 8세기 이전의 승상 중 명확하게 십대제자로 판단되는 예가 동아시아에 존재하는가이다. 십대제자가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10명의 명단으로 고정화된 것은 鳩摩羅什(344~413) 번역의 《維摩詰所說經》 弟子品이 그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³²⁾ 물론 경전의 한역시기만을 고려하면 6세기 후반 황룡사 중금당에 십대제자상이 존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동아시아에서 십대제자상이 분명하다고 인정할만한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좀 더 유보적인 입장에서 이들 10구의 승상을 ‘십대제자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10구의 불제자상’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한 가지 ‘십대제자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왜 하필 ‘10존’으로 구성하였는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8세기 후반 석굴암이나 흥륜사에도 10존의 승려상을 조성했다는 점으로

30) 원효의 塑像에 관해서는 T2039 4:1006a 《三國遺事》 元曉不羈 참조.

31) 문명대, 앞의 논문, 359~360쪽.

32) T475 3:539c~542a 《維摩詰所說經》 弟子品.

생각해 보면 ‘1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처음에는 큰 의미 없이 중금당 내 공간에 맞게 10구의 존상이 배치되었던 것이 이 후 황룡사의 예를 따라 석굴암에도 홍륜사에도 10구의 존상이 제작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실제로 20~30여구의 존상이 한꺼번에 조성된 양대 불비상의 경우를 빌어 보아도 통상 적게는 2구, 많게는 4구의 승상이 불상의 좌우에 배치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어서 황룡사의 존상들처럼 불보살상의 좌우에 10구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³³⁾

한편, 석가모니의 십대제자를 포함한 여러 불제자들이 모두 나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불제자 중에 아라한과를 얻지 못한 제자도 있어 이를 포함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십대제자는 부처님의 으뜸가는 상수제자들이지만 십육나한에 포함되는 제자는 제11존 라홀라뿐이며, 특히 대가섭의 경우 십육나한에서 제외되어 있어 십대제자와 나한은 서로 구별해야 한다.

2. 金剛力士像과 獅子像 추정 4구

중금당 내진 안쪽 좌우에 세워진 각 2기씩 모두 4기의 대석은 앞서 언급한 10기의 대석과 크기도 모양도 다르다. 이들 4기 대석은 평균 크기가 2.12m×2.09m여서 불제자상으로 추정한 10기의 대석보다 가로와 세로가 약 85cm가량 더 크다. 높이도 가장 높은 것이 34cm로 10기

33) 8세기에 들어서면 대표적인 예로 용문석굴 看經寺洞의 29조사상, 播鼓臺中洞의 25조사상이 있기는 하지만(강희정, <龍門 東山 看經寺 祖師像의 造成年代 再考> 《미술사학연구》 213, 1997, 59~83쪽) 10구로 제한된 경우는 8세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시기에도 보지 못했다.



〈도 8〉 獅子像 추정 대석의 아질흔(임영애 사진)

대석의 높이보다 20여cm 이상 낮다. 모양도 특이하여 정면에서 바라 보면 마름모꼴이며, 대각선의 길이는 전후의 길이가 좌우의 길이보다 더 길다. 또 뚫려있는 구멍도 10기의 대석은 중앙에 하나이지만, 4기의 대석은 대각선상에 2개의 구멍이 있다<도 8>. 이처럼 대석의 크기도 크고, 2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 위에 올려져 있던 상이 앞서의 불제자상보다는 바닥면의 면적이 넓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닥면의 면적이 넓다면 좌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만약 입상이라면 양 발을 넓게 벌린 상이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중금당 정면에 세워진 13구의 상이 석가삼존과 불제자상이라면, 불상에서 보다 멀리 조성된 4구의 존상은 그보다 존격이 낮은 상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좌우 4기의 대석은 불제자상의 대석보다도 지표면상의 높이가 25cm 이상 낮아 4기 대석 위의 존상이 불제자상 보다 낮은 위계임을 암시한다. 이제까지 중금당 동서벽에 2구씩 조성되어 있는 이 대석은 사천왕상이라고 알려져 왔고,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³⁴⁾ 그런데 역시 문제는 6세기 후반이라는 시기의 신라에 과연 사천왕상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을까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사천왕은 《金光明經》 <사천왕호국품>과 관계가 깊다.³⁵⁾ 이런 이유로 사천왕상의 시작시기를 이야기할 때 늘 거론되는 것이 바로 《금광명경》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진흥왕26년(565) 陳에서 劉思를 사신으로 파견할 때 함께 明觀을 귀국시키면서 불교경론 1700여권 보내왔다.”³⁶⁾ 이때는 황룡사 중금당에 여러 존상들이 만들어지기 불과 몇 년 전인데, 당시 유입된 불교경론 1700여권 중에 《금광명경》도 함께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³⁷⁾ 552년 眞諦에 의해 《금광명경》의 새로운 한역이 이루어진 바 있어 당시 전래 품목에 이 경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³⁸⁾ 이에 따라 신라의 사천왕신앙은 6세기 전반기 법흥왕대에 백제를 통해 수용되었거나 늦어도 진흥왕대에 독자적인 외교경로를 통해 수용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이다.³⁹⁾ 하지만 진제가 번역한 《금광명경》이 565년 전해진 1700여부 경전에 포함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만약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천왕이 신앙의 형태가 아닌 사천왕상의 조성으로까지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신라에서 6세

34) 문명대, 앞의 논문, 359~340쪽.

35) 《금광명경》은 현재 3본이 현존한다. 담무참이 번역한 《금광명경》 4권(T663)이외에도 597년 隋 寶貴가 彥琮, 費長房 등과 협력하여 종전의 번역을 통합한 《合部金光明經》 8권(T664), 703년 당 의정이 번역한 《금광명최승왕경》 10권(T665)이 현존한다.

36)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興王 26年條.

37) 심효섭, <신라 사천왕신앙의 수용과 전개> 《동국사학》 30, 1996, 125쪽.

38) 陳의 眞諦가 552년 번역한 《금광명경》 7권본은 현재 남겨져 있지 않다.

39) 심효섭, 앞의 논문, 125쪽.

기 후반 사천왕상은 물론이고, 사천왕 신앙의 사례 또한 찾아볼 수 없다.⁴⁰⁾

한편, 634년 분황사 모전석탑의 네면 입구에 사천왕상이 아닌 금강 역사를 세우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당시 사천왕상(혹은 이천왕상)이 조성되었거나 유행하였다면 분황사 모전석탑 문비 좌우에 사천왕상을 세웠을 것이다. 아울러 679년 唐軍을 물리치기 위해 사천왕사를 세웠던 것도 역으로 그 이전에는 사천왕상이 유행하지 않았거나 강력한 존재로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6세기 후반 신라에 사천왕상이 유행하였고, 황룡사 중금당 안에 네 구의 사천왕상이 이미 봉안되어 있었다면 새삼 ‘사천왕상’이 당군을 물리칠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⁴¹⁾ 혹시 사천왕상이 그 이전 신라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7세기 중엽경 《금광명경》의 유입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존상이었기 때문에 7세기 후반 당시에 존재가치가 훨씬 컸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⁴²⁾

중국의 예중 사천왕상이 분명하며, 명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가장 이른 예는 604년 서안 神德寺 사리기의 사천왕상이다.⁴³⁾ 용문석

40) 한국 사천왕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은 “백제 의자왕 20년(660)에 天王寺와 道讓寺의 탑이 진동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다(《三國史記》百濟本紀 第6 義慈王 二十年條).

41) 필자는 사천왕사 목탑 기단부에 안치되었던 소조상을 《灌頂經》에 등장하는 神王像으로 파악하였으며(임영애, <사천왕사지 塑造像의 尊名> 《미술사논단》 27, 2008, 7~37쪽), 사천왕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천왕상은 금당 안이 아니라 목탑 내부에 봉안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2)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영애, <석굴암 사천왕상의 도상과 불교경전> 《강좌미술사》 37, 2011 참조.

43) 李舉綱 樊波, <隋神德寺遺址出土舍利石函上的天王圖像> 《陝西歷史博物館官刊》 12, 2005-12, 162~165쪽.

굴의 천왕상은 용문석굴 중 가장 이른 예인 韓氏龕(661년)을 비롯하여 惠簡洞(673년), 봉선사동(675년) 등 대부분 7세기 중~후반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사천왕이 아닌 이천왕이다.⁴⁴⁾ 일본도 물론 6세기의 사천왕상은 존재하지 않는다.⁴⁵⁾ 현재 남겨진 가장 이른 사천왕 그림은 623년 호류지 석가삼존 대좌의 사천왕도이며, 사천왕상으로는 650년경 호류지 사천왕상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예이다.⁴⁶⁾

이와 같이 6세기 후반 신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6세기 후반 황룡사 중금당의 좌우벽에 사천왕상이 배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네 기의 대석 위에 배치되어 있던 존상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앞서 제시하였던 <삼국유사>의 ‘노승 한 사람과 장사 한 사람이 금전문에서 나왔다’라는 기록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⁴⁷⁾ ‘장사’의 사전적 의미는 ‘기개와 골격이 굳센 사람’을 의미하는데 보통 力士라고 바꾸어 부르기도 한다. 갑옷을 갖추어 입은 사천왕상을 두고 장사라고 불렀을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사천왕상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장사’보다는 ‘장군’이 보다 적합해 보인다. 실제로 6세기 전반에 개착된 용문과 공현 등 석굴의 문 밖에는 예외 없이 금강역사상이 조각되었다. 금강역사상이 등장하는 것은 남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양대 불비상에도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 때 금강역사와 동반되는 것은 ‘사자상’이

44) 당대 조성된 용문석굴 중 정확한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129개의 洞(혹은 龕) 중에서 6개동에 이천왕이 조각되어 있다(官大中, <龍門石窟藝術> (北京, 人民出版社, 2002)의 表4A(119~132쪽).

45) 今城甚造, <日本における四天王像の起源> <佛敎藝術> 59, 1965, 13~16쪽.

46) 岩田 茂樹, <法隆寺金堂四天王像の諸問題> <國寶 法隆寺金堂展>, 東京: 朝日新聞社, 2008, 48쪽; 山田磯夫, <金堂四天王像> <法隆寺美術論爭の視點>, グラフ社, 1998, 152~1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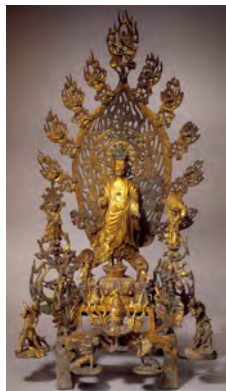
47) 이 글의 각주 6 참조.



〈도 9〉 공현 제5굴 입구의
금강역사상과 사자상(임영애
사진)



〈도 10〉 분황사
금강역사상과 사자상(임영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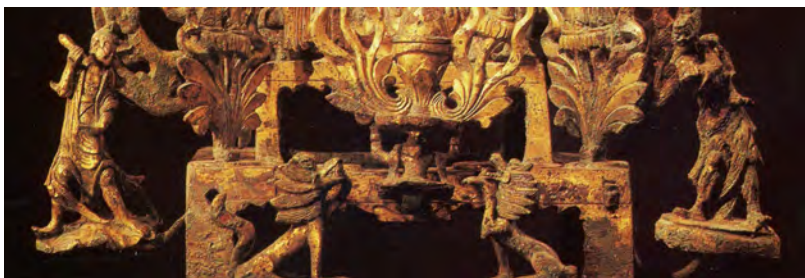


〈도 11〉 正光5年(524)鎬
금동상, 메트로폴리탄
미술관(Chinese Sculpture,
Yale Univ. Press, 2006,
3-57)

다. 6세기 전반 공현 제5굴의 사자상도 금강역사와 함께 석굴 입구 좌우에 각1구씩 조성되어 있다<도 9>.48) 북조에는 금강역사와 사자가 석굴 문 밖 좌우에 배치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석굴이 아닌 불비상으로 만들어진 경우 대부분 불상군의 좌우 가장자리에 금강역사와 사자가 예외 없이 배치된다<도 1, 2>. 금강역사와 사자가 동반 등장하는 경우는 634년 분황사 금강역사도 마찬가지이다<도 10>. 물론 현재 남겨진 4구의 사자상도 시대가 다양하여 분황사 초창 당시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49) 처음부터 금강역사상과 함께 사자상이 있었을

48) 임영애, <중국 고분 속 鎮墓獸의 양상과 불교적 변형> 《미술사논단》 25, 2007, 52쪽.

49) 지금의 사자상은 통일신라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본다(강우방, <芬皇寺의 金剛力士像>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1999, 216쪽); 1915년 수리 이전에는 6마리가 있었는데 4마리는 분황사의 현재 자리에 두고 나머지 2마리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겼다고 전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분황



〈도 12〉 도11의 하단 부분



〈도 13〉 용문석굴 빈양중동 불대좌 좌우의 사자상
(《龍門石窟造像全集》 第1卷, 2002, 도 163)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해 보면 중금당 좌우벽 앞에 놓인 2구의 상은 금강역사상과 사자상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

사탑> 《경상북도의 석탑 I》, 2007, 44쪽).

다. 이러한 심증을 뒷받침하는 유물은 남북조를 막론하고 수도 없이 많으며, 오히려 금강역사상과 사자상이 배치되지 않은 예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이다<도 11, 12>. 6세기 당시 한 쌍을 이룬 금강역사상과 사자상은 상당히 인기 있는 주제였음에 틀림없다. 이처럼 4구의 존상을 필자의 추정대로 각 2구씩의 금강역사상과 사자상이라고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사자상을 금당의 내부에 조성하는 것은 어딘지 어색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사자상’하면 분황사 모전석탑이나 다보탑, 혹은 왕릉수호의 사자상과 같이 실외에 배치된 모습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뒷다리를 꿇고 대좌 양쪽에 앉아 있는 사자를 떠올릴 수 있다. 오호십육국시대 대좌에 함께 조성되던 사자는 북위시대 대좌에서 벗어나 대좌 밖 좌우에 배치된다. 용문석굴 빈양중동을 비롯하여 수많은 예가 있다<도 13>.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사자가 북위 후기, 즉 6세기 전반부터 항상 금강역사상과 동반 등장한다는 점이다. 앞서도 이야기하였지만 금강역사상과 사자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는 특히 군상으로 조각된 경우 예외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佛祖統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법사가 건물 모서리에 있는 금사자를 가리키며 비유하였는데, 그의 말들을 모아서 金獅子章을 만들었다.”⁵⁰⁾ 기록에는 ‘건물의 모서리’라고만 적고 있어 건물의 안인지 밖인지도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금사자상을 건물 밖에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비록 측천무후 때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7세기 중~후반 내전 안에 사자상이 봉안되어 있었으며, 건물 안에 사자상을 두는 것이 그리 어색한 일은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실제로 6세기 단독의 금동사자상도 적지 않게 남아있다<도 14>.

50) T2035 29:0451a 《佛祖統紀》.



〈도 14〉 금동사자상, 6세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임영애 사진)

둘째, 황룡사의 中門에도 한 쌍의 금강역사상이 있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금당 안의 금강역사상과 중문의 금강역사상이 서로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은 호류지 금당 앞 중문에 금강역사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가질 만하다. 일본 호류지 중문의 금강역사는 현재 중문에 남겨진 금강역사상으로 가장 오래된 예이

다.⁵¹⁾ 제작 시기는 호류지 《資財帳》에 의해 오중탑의 소조상과 함께 711년 작으로 알려져 있다.⁵²⁾ 그렇다면 황룡사에도 중문에 금강역사가 세워졌을 것인가? 만약 세워졌다면 과연 그 시기는 언제인가?

황룡사에 세워진 최초의 중문은 553년에 시작하여 569년에 완성한 창건가람의 중문이다. 지금의 중문지는 최종 가람의 중문지인데 짐작컨대 황룡사 구층목탑이 축조되는 7세기 중엽의 건물이거나 혹은 중루와 경루가 세워지는 경덕왕대의 건물로 추정된다. 중문지 안에는

51) 747년 기록인 《法隆寺伽藍緣起井流記資財帳》에는 711년 작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의 상은 거의 대부분이 후대에 보수된 것이다.(《法隆寺伽藍緣起井流記資財帳》: 村田治郎, <法隆寺關係の史料抄> 《法隆寺の研究史》,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1987, 400쪽); 大西修也, 《法隆寺 III》美術, 保育社, 2003, 172~181쪽.

52) 일본의 경우 현재 남겨진 가장 이른 예는 711년 호류지의 금강역사이며, 이후天平시대(729~748)부터 본격적으로 남대문과 중문에 금강역사를 세웠다.



〈도 15〉 맥적산 제133굴 제10호 조상비 하단 부분, 복위 후기
(中國石窟 《麥積山石窟》, 도 20)

현재 2기의 직사각형 대석이 있다. 크기는 가로 192.5×137cm에 높이가 82cm 가량인데, 역시 두 개의 사각형 구멍이 대석의 양쪽 끝에 뚫려 있다. 이 대석의 모양은 대석의 윗면과 옆면 등 전면에 걸쳐 정연하게 골을 새겨 넣어 잘 다듬어져 있는 상태로 앞서 중금당 내부의 대석과는 차이가 있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해 살펴보아야 할 기록이 있다. 《낙양가람기》의 기록이 그것인데, “挾門에는 四力士와 四獅子를 금은과 주옥으로 장식하여 눈부시게 장엄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적고 있다.⁵³⁾ 이 때 협문이란 ‘출입의 편리

53) T2092 1:999c 《洛陽伽藍記》 城內 卷第一 ; 같은 기록은 T2034, 9:0082b, 《歷代三寶紀》에도 있다.

위해 궁궐이나 관청 등의 정문 혹은 중문 좌우에 낸 작은 문'을 일컫는데, 보통 東挾門과 西挾門이 있다. 이 기록의 내용이 그대로 재현된 북위 후기의 불비상이 있다<도 15>. 이 불비상 중앙에는 불·보살상이 봉안된 龕이 있고, 그 좌우에 바로 협문이 보인다. 협문 안에는 앞서 《낙양가람기》에서 말한 금강역사상과 사자상이 있다. 문의 좌우에 협문을 내고 그 안에 금강역사상과 사자상을 배치한 것은 석굴 문밖 좌우에 금강역사를 두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북위의 경우 영령사처럼 협문에 한 쌍 혹은 두 쌍의 금강역사상과 사자상을 두기도 하고, 석굴 문 밖에 세워두기도 한다. 그러나 협문이나 석굴 문밖 에 금강역사상과 사자상을 세운 예를 남조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북위 영령사의 좌우 협문에 금강역사상과 사자상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해서 이 시기 중문 안에도 금강역사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후대 중문 안에 금강역사상이 안치되게 된 배경은 이와 관련이 있다. 북위 후기의 전통이 唐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우리는 당대 석굴 문 밖 좌우에 조성된 금강역사를 수도 없이 만나기 때문이다. 짐작컨대 사찰의 중문 안에 금강역사가 배치되는 관습은 당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가 바로 7~8세기경에 세워졌을 황룡사 중문의 금강역사상이며, 711년 호류지 중문의 금강역사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의 추론 결과 중금당 좌우 벽 앞에 놓인 2기의 대석 위에 금강역사상과 사자상이 안치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추정은 6세기 중엽 북제 하북성의 불상군, 양대 불비상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다<도 16>. 이들 존상의 대좌나 불비상의 좌우 가장자리에는 예외 없이 금강역사와 사자가 있다. 모두 부조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평면상으로는 금강역사가 바깥에, 사자상이 그 안쪽에 새겨져 있다. 사자상이 항상 불상과 좀 더 가까이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금

당 안의 좌우 각 2기 대석 중 앞 쪽에는 금강역사상이, 불상과 좀 더 가까운 뒤쪽에는 사자상이 놓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는 시대는 늦지만 8세기 후반 원성왕릉에서도 무인상은 입구 쪽에, 사자는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과 상통한다고 하겠다.⁵⁴⁾ 짐작컨대 금강역사는 양 발을 크게 벌려 금당의 중심을 바라보고 서있고, 사자상은 뒷다리를 꿇고 앞다리를 세운 자세, 소위 蹲距形



〈도 16〉 복제 天統2年(566)銘
석가여래좌상, 수덕사지

의 자세로 금당의 입구쪽을 향해 앉아 있었을 것이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사자는 앉아있고, 금강역사는 서있기 때문에 금강역사를 앞쪽에 세우고 사자를 뒤쪽에 배치할 경우 금강역사가 사자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금당 안에 내진이 설치되어 있어 적어도 1m 가량의 벽체가 이들 존상을 둘러싸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내진 입구 정중앙에 서서 불상군들을 바라보게 되며, 이 경우 금강역사상이 사자상의 시야를 가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54) 필자는 일찍이 원성왕릉의 석인상을 금강역사와 관련지어 왔다(임영애, <‘서역인’인가 ‘서역인 이미지’인가- 통일신라미술 속의 서역인식 -> 《미술사학연구》 제236호, 한국미술사학회, 2002.12., 45~67쪽 ; 林玲愛 <“統一新羅の美術に現れる“西域人のイメージ”> 《佛教藝術》 제287호 (東京, 毎日新聞社, 2006에 재수록). 이처럼 능 앞 석물로 금강역사상의 이미지를 띤 무인상과 사자상을 함께 조성한 것은 황룡사 중금당 내 배치와 같은 예에서 착안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供養者像 추정 2구

남은 2기는 금당의 좌우벽 앞쪽 공간에 놓인 2기의 대석이다. 2기의 대석 모두 손상이 심하지만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제까지 범천과 제석천이 2기 대석의 존상으로 알려져 왔다. 문제는 앞서의 대석들과 마찬가지로 과연 6세기 후반이라는 시기에 범천과 제석천이라는 존상의 조성이 가능한가이다. 또 한 가지 동반되는 문제는 이 대석의 크기이다. 이 2기 대석의 크기가 뒷줄에 서있는 불제자상 추정 10기 대석보다 가로세로 80여cm 가량 크기가 크다. 따라서 대석의 크기에 비례하여 입상을 세울 경우 뒤에 서있는 10구의 불제자상에 비해 훨씬 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내진 입구 정중앙에 서서 불상군을 바라보면 이들 존상은 뒤에 서있는 존상의 시야를 가리게 되므로, 이 대석 위에 오를 상은 좌상일 가능성이 크다.

이 2기의 대석에도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과연 6세기 후반이라는 시기 범천과 제석천상이 가능한가? 황룡사 중금당이 완성되는 진평왕대 제석신앙이 존재하였으며, 선덕여왕대에는 제석신앙이 유행한 것은 사실이다.⁵⁵⁾ 그러나 제석신앙과 제석천상이 조성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6세기라는 시기가 동아시아에서 범천과 제석천상의 이미지화가 가능했던 시기인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⁵⁶⁾ 이제까지 6세기 동아시아에 남겨진 상 중에 범천과

55) 안지원, <신라 眞平王代 帝釋信仰과 왕권> 《역사교육》 제63집 1997.9, 65~98쪽.

56) 황룡사 금당지의 대석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범천, 제석천상의 도상에 관해서는 허형욱, <석굴암 범천, 제석천상 도상의 기원과 성립> 《미술사학연구》 246·247, 2005, 5~46쪽을 참조할 것.

제석천이 쌓을 이루어 등장하는 예는 알려진 바 없다.⁵⁷⁾ 이렇게 보면 범천과 제석천상이 이 대석 위의 존상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이며, 중금당 내에서 이 2기의 대석이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해도 범천과 제석천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된다. 그 공간에 놓일 존상은



<도 17> 공양자상 추정 대석(임영애 사진)

앉아 있는 상이면서 범천과 제석천의 존격이 아닌 그 보다는 위계가 낮은 상이 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후대의 범천, 제석천상은 대부분 입상이며 좌상의 범천상과 제석천상은 보지 못했다.

한편, 이 2기의 대석을 두고 8세기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⁵⁸⁾ 발굴당시 이 대석의 주위에 가설용 비계구멍이 확인되지 않았고, 지표에 노출된 대석에 야질흔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이 2기의 대석은 야질흔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손상이 심하여 야질흔의 유무로 조성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도 17>. 또 좌상일 경우 입상과 달리 높이가 낮아 굳이 가설용 비계를 마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에 따라 16기의 대석 중 이 2기의 대석 만 특별히 제작시기가 늦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 글의 논

57) 다만 범천의 한 도상으로 6~7세기 螺髻梵王像은 존재하지만(김리나, <<유마힐경>의 나계범왕과 그 도상> 《진단학보》 71·72, 1991, 214~215쪽 : 허형욱, 위의 논문, p.9) 제석천상과 쌓을 이루어 조성된 예는 보지 못했다.

58) 한정호, 앞 논문, 53쪽.



〈도 18〉 불비상, 서위, 넬슨미술관 소장(松原三郎, 《中國佛教彫刻史論》 圖版編1, 東京: 吉川弘文館1995, 5315)

〈도 19〉 도18의 부분

의대상인 16기의 대석은 모두 동시에 조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2기 대석 위의 존상이 범천과 제석천상이기 곤란하다면 과연 어떤 상이 조성되어 있었을까? 2기의 대석이 놓여있는 중금당 공간 안의 위치로 본다면 공양자상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공양자상은 앞서 언급한 6세기 불비상에서 금강역사상, 사자상과 함께 각별히 선호되던 상이다. 각종 불비상에서 공양자상은 입상인 경우도 있고, 좌상으로 표현된 경우도 있다. 불비상에서 공양자상은 중앙하단에 한쪽 무릎은 꿇고 나머지 무릎은 세운 跪坐의 자세로 앉아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533~543년 불비상 상단의 불좌상 바로 아래 서로 마주

보고 앉아 꽃을 들고 있는 공양자상이 보인다. 그 바로 아래 역시 사자가 있고, 바깥쪽에는 또 금강역사가 1구씩 서있어 앞서 언급한 존상들이 함께 등장한다. 이는 서위의 불비상도 마찬가지이다<도 18, 19>.

IV. 맺음말

- 다양한 불존상의 동시 배치와 일체화 -

지금까지 황룡사 중금당 안에 남겨진 16기 대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보면 장육석가삼존상 좌우의 10기 대석은 불제자상, 좌우벽 앞의 4기는 금강역사상과 사자상, 그 앞 공간의 2기는 공양자상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6세기 중국의 석굴이나 불비상 속 군상에는 예외 없이 이들 존상이 함께 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구성이 통일신라 연기지방의 불비상에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비암사의 673년 癸酉銘 불비상과 蓮華寺 칠존 불비상에도 승려상, 금강역사상, 사자상이 함께 등장하며, 689년 己丑銘 불비상에는 불제자상, 금강역사상, 사자상, 궤좌의 공양자상이 모두 등장하고 있어 지금까지 필자의 추정을 충분히 뒷받침해준다<도 20, 21>. 물론 이들은 황룡사 중금당 불존상이 제작된 후 100여년이 흐른 뒤이지만 7세기 후반까지 사천왕상이나 범천, 제석천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불상의 권속으로 금강역사상이나 사자상, 그리고 공양자상이 대세였음을 반증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6세기 후반 황룡사 중금당의 불존상이 조성될 무렵 신라에는 사천왕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7세기 중~후



〈도 20〉 己丑銘 불비상, 높이 57.0cm, 연기 비암사, 689년, 국립청주박물관(《통일신라조각》, 국립중앙박물관, 2008, 도3)



〈도 21〉 己丑銘 불비상의 하단 세부(《통일신라조각》, 국립중앙박물관, 2008, p.18)

반부터 사천왕상이 유행하면서 경주에 사천왕사가 등장하고, 감은사사리의 사천왕상이 만들어진다. 사천왕상의 유행과 함께 8세기 중엽의 석굴암에는 사천왕상이 추가된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존상의 가감은 있겠지만 석굴암 안에 불상, 보살상, 불제자상, 사천왕상, 금강역사상, 팔부중 등 여러 존상이 함께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황룡사 중금당 내 여러 종류의 존상이 연출한 장엄함에 강한 인상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불교가 유입된 이후 초기의 불교조각은 단독상이거나 삼존상이었다. 이후 불삼존상 이외에 금강역사상이나 사자상, 공양자상과 같은 다양한 불교조각의 존상들이 한자리에 동시에 배치되고 이들이 일체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황룡사지 중금당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황룡사의 불교조각이 차지하는 의미는 특별하다.

【참고문헌】

- T125 26:696a 《增一阿含經》
 T2034, 9:0082b, 《歷代三寶紀》
 T2035 29:0451a 《佛祖統紀》
 T2039 3:1000a 《三國遺事》
 T2092 1:999c 《洛陽伽藍記》
 T245 下:0829c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
 T475 3:539c~542a 《維摩詰所說經》
 《三國史記》 卷44 列傳4 居柒夫
- 강우방, <芬皇寺의 金剛力士像>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1999, 216쪽.
 강희경, <龍門 東山 看經寺 祖師像의 造成年代 再考>, 《미술사학연구》 213, 1997, 59~83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분황사탑> 《경상북도의 석탑 I》, 2007, 44쪽.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 금당 기초 연구》 황룡사연구총서 5, 2010.
- 김리나, <皇龍寺의 丈六尊像과 신라의 阿育王像系佛像> 《진단학보》, 1979, 195~215쪽.
- 김리나, <《유마힐경》의 나계범왕과 그 도상> 《진단학보》 71·72, 1991, 214~215쪽.
- 김복순, <신라의 백고좌법회> 《신라문화》 36, 2010, 81~112쪽.
- 남동신, <新羅 中古期 佛敎治國策과 皇龍寺>,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22 2001.3, 14쪽.
- 문명대, <신라 삼보 황룡사 금당 석가장육존상의 복원과 황룡사지 출토 금동불입상의 연구> 《낙원스님고회기념학술논총 - 한국불교의 좌표 -》, 낙원기념 학술논총간행회, 1997, 380~393쪽(<신라 삼보 황룡사 금당 석가장육존상의 복원과 황룡사지 출토 금동불입상> 《한국의 불상조각》 제1권, 2003, 356~362쪽에 재수록)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皇龍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1984, 51쪽.
- 심효섭, <신라 사천왕신앙의 수용과 전개>, 《동국사학》 30, 1996, 125쪽.
- 안지원, <신라 眞平王代 帝釋信仰과 왕권>, 《역사교육》 제63집 1997.9, 65~98쪽.
- 양정식, <신라 황룡사, 북위 영녕사 그리고 일본 大官大寺-5~7세기 동아시아 도성제와 관련하여-> 《한국사학보》 9, 2000, 9~56쪽.
- 양정식, <신라증금당의 조성과 장육존상> 《선사와 고대》 12, 289쪽.
- 양정식, <皇龍寺 中金堂의 조성과 丈六尊像> 《선사와 고대》 12, 1999, 283~318쪽.
- 이선형, <중국 남송대 십육나한도의 도상연구> 《미술사학연구》 183, 1989, 60~61쪽.
- 임영애, <‘서역인’인가 ‘서역인 이미지’인가-통일신라미술 속의 서역인식-> 《미술사학연구》 제236호, 한국미술사학회, 2002.12., 45~67쪽(林玲愛 <“統一新羅の美術に現れる“西域人のイメージ”> 《佛教藝術》 제287호 (東京, 毎日新聞社, 2006에 재수록)
- 임영애, <사천왕사지 塑造像의 尊名> 《미술사논단》 27, 2008, 7~37쪽.
- 임영애, <석굴암 사천왕상의 도상과 불교경전> 《강좌미술사》 37, 2011.
- 임영애, <중국 고분 속 鎮墓獸의 양상과 불교적 변형> 《미술사논단》 25, 2007, 52쪽.
- 임영애, <중국석굴의 금강역사-북위 후기 금강역사의 세 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강좌 미술사》 32, 2009.
- 정병삼, <고려와 조선시대의 나한신앙> 《나한》, 국립춘천박물관, 2003, 155~157쪽.
- 최성은, <우리나라의 나한조각> 《나한》, 국립춘천박물관, 2003, 183쪽.
- 한정호, <황룡사 증금당지 불상대석에 대한 고찰> 《미술사연구》 24, 2011, 53쪽.
- 허형욱, <석굴암 범천, 제석천상 도상의 기원과 성립> 《미술사학연구》 246·247, 2005, 5~46쪽.
- 霍巍, <四川大學博物館所藏的兩尊南朝石刻造像> 《文物》 2001-10, 39~44쪽.
- 官大中, 《龍門石窟藝術》(北京, 人民出版社, 2002)의 表4A(119~132쪽)
- 今城基造, <日本における四天王像の起源> 《佛教藝術》 59, 1965, 13~16쪽.
- 大西修也, 《法隆寺 III》 美術, 保育社, 2003, 172~181쪽.
- 東伏見邦英, <新羅の黃龍寺九層塔に關する一考察> 《寶雲》 31冊, 1943.
- 山田磯夫, <金堂四天王像> 《法隆寺美術 論争の視點》, グラフ社p, 1998,

152~170쪽.

成都市文物考古工作隊·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 <成都市西安路南朝石刻造像清理簡報> 《文物》 1998-11, 1998, 4~20쪽(일본어 번역문 《佛敎藝術》 252, 2009, 13~34쪽)

岩田 茂樹, <法隆寺金堂四天王像の諸問題> 《國寶 法隆寺金堂展》, 東京: 朝日新聞社, 2008, 48쪽.

袁曙光, <四川省博物館藏萬佛寺石刻造像整理簡報> 《文物》 2001-10, 19~38쪽.
李學網 樊波, <隋神德寺遺址出土舍利石函上的天王圖像> 《陝西歷史博物館官刊》 12, 2005-12, 162~165쪽.

李成市, <新羅中代國家と佛敎> 《東洋史研究》 42-3, 1983, 71~72쪽.

李裕群, <試論成都地區出土的南朝佛敎石造像> 《文物》 2000-2, 64~72쪽.

村田治郎, <法隆寺關係の史料抄> 《法隆寺の研究史》,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1987, 400쪽.

ABSTRACT

Restoration of the Figures of Buddha's 16 Dependents in the Main Hall of the Hwangryongsa

Lim, Young-ae

This paper has investigated who are the models of the 16 pedestal bases left in the main hall of the Hwangryong Temple. As a result, it has been concluded that the 10 pedestal bases on the right and left sides of the Buddha's triad are for figures of Buddhist disciples, the 4 bases in front of the right and left walls for figures of Vajrapani and lions, and the 2 bases in the anterior space for figures of Buddhist offerers. The same composition is shown from the Buddhist stele in the area of Yeon-gi in the Unified Silla Dynasty. Especially, the fact that the Buddhist steles made in 673 with inscriptions of the year of the chicken in the Biam Temple, and the one in the Yeonhwa Temple show figures of monks, Vajrapani, and Buddhist offerers, and the other one made in 689 with inscriptions of the year of the ox reveals figures of Buddhist disciples, Vajrapani, lions, and Buddhist offerers together supports the current author's conjecture.

There were no figures of the Four Heavenly Kings in Silla toward the time when the figure of Buddha in the Main Hall of the Hwangryong Temple was created in the late 6th century. However, as the figures of the Four Heavenly

Kings became in vogue in the mid and late 7th century, the Temple of the Four Heavenly Kings appeared in Gyeongju, and figures like the Four Heavenly Kings on the Sari base in the Gameun Temple were produced. With the figures of the Four Heavenly Kings in fashion, another instance of such figures is added to the Seokgul Temple in the mid 8th century. Though there have been addition and elimination of Buddha figures over times, the common occurrences of various figures like those of Buddha, Bodhisattvas, Buddhist disciples, the Four Heavenly Kings, Vajrapani, and the Eight Kinds of Divine Guardians were the result of the solemnity exerted by the diverse figures in the main hall of the Hwangryong Temple. The Buddhist sculpture in the early days of Buddhism after it was introduced into Korea showed Buddha's single figures or Buddha's triad. The Buddhist sculpture as it is in the Hwangryong Temple has a special significance in that it was from the main hall of the Hwangryong Temple that the simultaneous array and unification of various figures of Buddhist sculpture including figures of Vajrapani, lions, and Buddhist offerers as well as Buddha's triad originated.

Key words: Hwangyongsa, Main Hall, Buddhist Disciple, Arhats, Ten Buddha's Disciples, Vajrapani, Four Heavenly Kings, Lion, Buddhist Offerer

논문 투고일 : 2011.11 . 11 심사 완료일 : 2011. 11. 30 게재 확정일 : 2011. 12. 20